



광남초대석 이 정 선 광주시교육감

“한 아이도 포기 않는 기본교육... 광주전남교육특별시 시대 열 것”

직선4기 광주교육은 ‘다양한 실력’을 기치로 공교육의 토대를 다지며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365-스터디룸’ 조성과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광탈페’ 등 학생 맞춤형 정책을 통해 배움의 기회를 넓힌 결과, 지난해 10년 만에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자를 배출했고 2년 연속 교육부 시·도교육청 ‘최우수’ 평가 등의 굵직한 결실을 맺었다. 올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본교육’ 강화에 방점을 찍는다. 모든 학생이 출발선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기초학력과 인성, 책임교육을 촘촘히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최근 광주·전남 지역에 확산되고 있는 행정통합 논의와 맞물려, ‘실력 광주’의 교육 경쟁력과 ‘글로벌 전남’의 지역 기반 역량을 결합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지역의 경계를 넘어 학생과 협력의 교육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더 넓은 배움의 무대를 제공하겠다는 전언이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을 만나 광주교육의 현황과 2026년의 비전을 들어봤다.

규모 재정 혜택,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기업 유치 등 ‘통 큰 보상’을 약속했다. 실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통합특별시에 연 5조원씩 총 2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또 2월 초에는 국무총리실이 광주시, 전남도와 함께 7월 출범할 통합특별시의 재정과 권한 이양을 논의하기 위한 TF를 구성했다. 다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한 법안에는 광주·전남도가 핵심특례로 분류한 31건 중 19건만 반영되고 12건은 반영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정부의 재정 지원에 대

부 평가 전과 ‘우수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열악한 재정난을 이겨내기 위해 국가 공모사업에 꾸준히 도전해 1000억원 상당의 누적 인센티브를 확보해 다양한 교육사업을 진행했다. 2026년은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모든 학생들이 광주교육의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기본사회’에 맞춰 모든 교육구성원이 공교육 안에서 회복하고 성장하며 행복할 수 있는 ‘기본교육’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인성·생활교육 강화를 토대로 한

육경비부터 교재 구입, 학습품비, 대학원서 접수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는 광주시와 함께 힘을 모아 ‘학생 교동비 지원사업’도 시작했다. 초등학생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도시철도(지하철)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으며, 중·고등학생은 요금의 반값만 내면 되는 방식이다. 학생들 몫은 전액 교육청에서 부담한다. 또 하나 광주교육의 인기 정책이라고 하면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를 꼽을 수 있다. 단순한 국제교류가 아니라 학생들이 평소 관심이 많았던 분야를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유도하고 있다. 지난 1월 문을 연 전국 최초 AI교육 종합기관 ‘AI교육원’은 디지털 교육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다. AI교육원은 광주 인공지능 산업 기반 콘텐츠 체험, AI 관련 교육, AI지식탐구가 한자리에서 가능하다. 아외는 자율주행, 드론연습 등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꾸렸다. 특히 학생, 학부모는 물론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주중·주말·방학 기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연간 최대 3만여 명의 시민이 디

행정통합 속 교육 소외 없도록 노력...‘실력 광주’ 확대 꿈드림이·글로벌 프로그램 운영...모든 학생 맞춤 성장 누구나 이용하는 ‘AI교육원’ 개원...미래지향 학교 구현



- 어느덧 새학기가. 새해 벽두부터 불고 있는 행정통합 바람에 신학기 준비까지, 교육계 수장으로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 같다. △ 학기가 시작되기 전이면 늘 교육 현장을 둘러 보며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과 소통해왔다.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을 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그런데 올해는 지난해처럼 교육 현장을 많이 찾아가지 못해 아쉬움이 있다. 새해 초부터 시작된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때문이다.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 적극 지지하면서 국회 상임위 통과까지 속속속결로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행정통합이 속도감있게 추진되는 상황에서 광주·전남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소외되는는 안 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됐다. 행정통합에 발맞춰 설명회, 공청회 등에 적극 참여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자칫 방향을 잃지 않도록 광주·전남 시도민과 교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듣고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잘 배울 수 있는 환경과 정책을 만드는 것이다. 최고우면하지 않고 당당하게 적극 대응하겠다. 교육통합을 계기로 광주·전남 학생들이 미래를 향해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학기 준비도 꼼꼼히 하겠다.

한 명확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대규모 재정 지원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교육 부문에도 최대한 많은 재정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광주교육의 예를 들면 ‘꿈드림이’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등의 정책이 학생, 학부모 모두의 호평을 받았지만, 재정 여건 때문에 보편적 정책으로 펼치지 못했다. 예산이 확보되면 광주·전남 학생들에게 폭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교육 사각지대도 해소될 것이다. 또 교직원 연수, 마음건강 프로그램, 복지 등도 대폭 개선된다. - 지난해는 광주교육이 많은 성과를 거둔 한해였던 것 같다. 올해 광주교육은 어떻게 이끌 계획인가. △ 2025년을 한 마디로 평가한다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해’였다고 할 수 있다. 사교육 열풍이 거센 가운데 10년 만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수능 만점자가 배출됐다.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김현 학생이 최연소 ‘기특한 명장’ (교육노동부 ‘기술인재 특별한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되는 쾌거가 있었다. 상급학교 진학률이 어느 때보다 좋게 나타났으며, 기초학력 미달률은 1%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외부평가에서도 좋은 소식이 잇따랐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선정,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교육발전특구사업 교육

‘교육 안전망’을 구축하고, 둘째, 다양한 교육을 통한 ‘맞춤형 성장’을 이끌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협치를 통한 ‘행복공동체’를 구현하겠다. 의무교육이 공교육으로서 최소 조건이었다면, 기본교육은 공교육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최대 조건이 될 것이다. 학생, 생활, 안전, 복지, 돌봄 등을 총괄시켜 광주 학생들이 올바르게 배우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 기본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 그동안 추진해온 꿈드림이, 국제교류 활동 등이 기본교육과 닿아있는 것 같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 ‘꿈드림이’는 말 그대로 학생들이 꿈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만든 정책이다.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경제적 여건 때문에 소외되거나 불편함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출발했다. 이 정책을 구상할 때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모델’이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추구하는 ‘선별적 교육복지’에 발목이 잡혀 시행 첫해에는 중3, 고3 학생에게만 지원했다. 학생, 학부모의 호응이 커지면서 대상을 늘려달라는 목소리가 많아 지난해에는 중 2·3학년, 고 2·3학년 등으로 확대했다. 올해는 보건복지부와 꾸준한 논의 끝에 모든 중·고등학생에게 60만~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바우처로는 수련활동비, 문화체험비 등 학교 교

지난해에는 미국, 캐나다 등에서 헤밍웨이 등 대문호의 작품을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기후 위기 체험을 위해 덴마크, 아이슬란드에서 빙하 탐방, 폐기물 발전소 등을 견학하기도 했다. 올해 프로그램은 △민주·인권·평화통일 △문학 △과학 △직업 탐방 △생태전환 △문화예술 등 다채로운 주제로 세계 곳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학생들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며 글로벌 인재로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 학생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다. 최근 AI교육원이 문을 열어 지역민의 기대가 크다. △ 광주시교육청은 디지털 대전환에 따라 디지털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학생, 교사가 AI와 디지털교육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4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가장 먼저 스마트기기 보급, 광주아이온(AI-ON) 운영, AI교육원 개원 등을 통한 디지털 학습 인프라를 구축했다. 둘째, 빛고을AI, 광주형 AI 교수학습자료 등의 개발·보급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지원하고 있다. 셋째, 초·중학교 AI·SW 교육과정 운영, 체험·탐구 프로그램 지원, AI중점학교 확대 등을 통해 AI 활용 맞춤형 학습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넷째, 교원 역량 강화 연수, AI광주미래교육박람회 등을 개최하며, 교사 중심의 디지털 수업혁신을

필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람 중심의 광주형 AI교육 생태계가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남은 임기동안, 또는 통합교육감으로 선출된다면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 △ 취임 이후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밤낮없이 뛰어왔고, 지난해부터 그동안의 노력을 하나 둘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행정통합이 빠르게 추진되면서 교육현장에서는 간신히 다시 쌓은 ‘실력 광주’의 위상 추락, 인사이동 불안 등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지금 불고 있는 행정통합의 바람은 시대적 흐름이자, 반드시 이뤄야 할 역사적 소명이기도 하다. 교육 수장으로서 행정통합에서 교육이 소외받지 않고,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촘촘히 살피겠다. 광주·전남이 ‘실력 광주’의 경쟁력과 ‘글로벌 전남’을 더해 ‘교육특별시’로서 위상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좋은 교육은 학생, 학부모, 교사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시민 모두가 함께 했을 때 진정한 교육이 완성된다. 2026년, 광주·전남 교육이 역동적이고 힘찬 기운을 가진 말처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광주·전남 시도민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사진=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